

●●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적용과 비즈니스 모델 동향 - 인공지능 병리·영상진단 의료기기 등¹⁾

보건산업혁신기획팀 박대웅, 정유성

Contents

- I. 배경
- II.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적용 동향
- III. 디지털 헬스케어의 비즈니스 모델 및 국내 동향
- IV. 결론 및 시사점

1) 본 브리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R&D, P0002072)”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임



I 배경

- 지능정보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고 있으며 보건의로 분야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표적임

 - * WHO는 디지털 헬스를 빅데이터, 유전체학 및 인공지능 등 고급 컴퓨터 공학을 사용하는 분야 뿐 아니라 e-health, mHealth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규모는 2019년 1,063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30% 성장하여 2026년에는 6,394억 달러로 전망(Global Market Insights)

-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 요인으로는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이라는 기술적 측면과 건강관리의 효율성 증대라는 보건의료적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확산, 의료 IT 인프라 확충, 보건의로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및 인공지능의 발전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을 이끌고 있음
 - * 특히 최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인공지능 폐 CT 영상 진단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는 각국의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가 재정 건전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 디지털 헬스케어는 진단 및 치료의 정밀도와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의료 시스템에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가하는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와 예방에 기여

-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의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적용에는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비용 부담 문제가 대표적임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법정 건강보험을 통해 수가 보상이 되는 국가도 드문 상황
 - 이는 기존 수가 체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가치 측정이 어렵기 때문
 - * 만성질환 관리 앱의 경우 활동 데이터(입력 데이터)와 의료 데이터(결과 데이터)를 연계해야 실제 가치 평가가 가능한데 용이하지 않음. 또한 많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강조하는 개인화된 맞춤형 관리 서비스는 전통적인 치료 시스템에 통합되기 어려움²⁾
 -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첨단 보건의료기술의 활용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비용 문제가 꼽히고 있음³⁾

-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적용 사례 및 현재 활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2) McKinsey & Company, Digital Health @ Worldwebforum, 2020.1.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도자료, 국민 85%, "코로나19 이후 보건산업 중요성 더욱 커졌다, 2021.1.6.

II 디지털 헬스케어 보험 적용 동향

1. 디지털 헬스케어 유형별 자금 조달 방법

- 디지털 헬스케어는 치료의 단계, 사용되는 기술, 애플리케이션 유형 등 다양한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
 - * 치료 단계별 분류: 예방, 진단, 치료, 질병 관리 등
 - * 기술 유형별 분류: 5G,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 * 애플리케이션 유형: 질병 지식 제공, 원격 모니터링, 원격 의료, 예측 및 분석 등
- 하지만 유형별 자금조달 난이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용 범위와 사용 환경이라는 2가지 변수로 분류하는 방식이 유용함⁴⁾

〈 디지털 헬스케어의 분류 및 예시 〉

	전체 모집단 적용	개별 환자 적용
병원내 사용	(1사분면) EMR, PACS 등 병원 인프라	(2사분면) AI 병리·영상진단 기기 등 진단 보조기기
외래 사용	(3사분면) 원격의료 시스템	(4사분면) 디지털헬스 앱

- 전체 모집단에 적용되는 인프라 성격 제품의 경우(1·3사분면), 적용 범위가 넓고 가치의 평가도 직관적이라 필요시 병원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도입이 용이한 반면 규제이슈가 남아있음
 - 전자무기록(EMR) 및 의료영상정보시스템(PACS)의 경우(1사분면) 건강보험청구목적,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확산됨
 - 원격의료의 경우(3사분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 환자 간 원격의료가 제한
- 병원 내에서 개별 환자에게 사용되는 경우(2사분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어 이를 활용한 치료가 선호·확산될 수 있음
 - 인공지능 병리·영상진단기기 등이 이에 해당하며 최근 미국에서 관상동맥, 뇌 CT 분석 인공지능 기기에 대해 보험수가를 인정한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도 최근 시 기반 의료기술의 수가 인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 제품은 없는 상황

4) PMLive, Digital healthcare may revolutionise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s, but who is going to pay for it?, 2020.12.2.

- ④ 4사분면의 경우 외래에서 환자가 사용하는 독립적인 솔루션으로 건강보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나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음

 - 독일의 경우 2019년 디지털헬스케어법(Digitale-Versorgung-Gesetz, DVG)을 마련하여 디지털 의료 앱에 대한 수가 체계를 구축
 - 우리나라는 치료 중심의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하고 있어 질병 관리와 예방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의료수가 인정에 어려움이 있음⁵⁾
-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2·4분면으로, 아래에서는 미국과 독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요 보험 적용 사례

1) 미국 사례(2사분면)

- ④ 미국에서 보험청(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 받은 사례로는 HeartFlow의 FFR_{CT}가 있음

 - * HeartFlow FFR_{CT}는 관상동맥 CT 결과를 분석, 관상동맥 혈액 흐름상태를 보여주어 혈관 조영술 검사가 불필요한 환자를 선별해주는 소프트웨어
 - HeartFlow의 FFR_{CT}가 메디케어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IDTF 등재가 필요했는데, 독립적이지 않은 CT 스캔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몇 차례 기각
 - * IDTF(Independent Diagnostic Testing Facility)는 의사의 사무실과 병원에서 모두 독립적인 시설로, IDTF가 의사 진료실에서 진단 절차를 제공할 경우 IDTF 일반 보장 및 지불 정책 규칙이 적용
 - * 해당 서비스가 CT 스캔 후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이미지 후처리의 범주 내에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지불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서비스로 보기 어렵게 됨
 - HeartFlow에서는 신청서의 용어 변경(후처리 소프트웨어 ➤ 생리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로비 비용 증액, 미국 의사협회의 HeartFlow FFR_{CT} 관련 행위에 대한 임시코드 발표 등의 노력을 수행,⁶⁾ 건당 1,450달러의 보험 수가를 인정받음⁷⁾

5) 이다은·김석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동향과 정책 시사점, 2018.6.20.

6) 김치원, (미국) 의료 인공 지능 수가 적용 사례 연구, 2020.1.28.

7) HeartFlow, Coding and Reimbursement Guide, 2018.1.



- 한편 2018년 4월에는 영국의 NHS England에서 혁신 제품에 대한 임시 수가 프로그램인 Innovation and Technology Payment(ITP) Program에 선정되었으며, 선정 첫 해에 35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FFRCT를 도입⁸⁾

* NHS England는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혁신기술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ITP Program을 운영

- 같은 해 11월에는 일본에서 국민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승인되어 12월 1일부터 수가 적용이 시작됨⁹⁾

◎ 최근 미국 보험청은 Viz.AI의 뇌졸중 소프트웨어인 Viz ContaCT에 대하여 최초로 AI 소프트웨어 대상 신기술 추가 지불보상을 부여함

* 신기술 추가 지불보상(New Technology Add-on Payment, NTAP)은 보험청에서 상당한 임상 개선을 제공한다고 인정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현재의 포괄수가제 지불이 부적절할 경우에 제공되는 임원에 대한 추가 지불

- Viz.AI는 뇌졸중 환자의 급성 치료를 간소화하여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 상태를 개선하며 입원 기간을 줄이고 시술 횟수를 늘림으로써 임상 및 재정적 결과의 개선을 입증

- 이에 따라 Viz ContaCT 사용당 최대 1,040달러의 NTAP 부여¹⁰⁾

- Viz ContaCT를 통해 뇌졸중 의심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NTAP를 적용하여 병원의 재정적 부담도 경감됨

- 이후 5개 이상의 신생 기업들이 그들의 소프트웨어에 NTAP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등 AI 지원 의료서비스의 개발 및 채택에 있어 중요한 규제 이정표로 인식되고 있음¹¹⁾

2) 독일 사례(4사분면)

◎ 2019년 11월 7일, 디지털헬스 앱의 수가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됨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디지털헬스 앱을 법정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 의사가 환자에게 앱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실증적 의료 효과 관련 입증자료가 부족한 업체의 경우 잠정 등재 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12개월 동안의 시험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시험기간 중 업체는 실증적 의료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연구자료를 확보하여 최종 확정등재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

8) HeartFlow, NHS England Extend Reimbursement for the HeartFlow Analysis through Innovation and Technology Payment(ITP) Program, 2019.6.5.

9) MASSDEVICE, HeartFlow wins Japanese reimbursement for FFRct analysis, 2018.11.15.

10) 김치원, Viz.ai의 메디케어 보험 적용, 2020.9.7.

11) MedCityNews, How CMS grants new technology add-on payments and determines substantial similarity, 2020.12.16.

- 이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헬스 앱 제품들이 정식 수가 및 임시 수가를 부여 받음
 - elevida, velibra, somnio 등의 제품이 정식 수가를 부여 받음

〈독일 디지털헬스 앱 수가 현황〉

제품명(개발사)	적응증	사용 기간	수가
 elevida (GAIA AG)	다발성 경화증	90일	743,75€
 velibra® (GAIA AG)	공황장애	90일	476,00€
 somnio (mementor DE GmbH)	불면증	90일	464,00€

- 이 외에도 공황장애 치료앱 'Invirto', 주관적 이명(Tinnitus aurium) 치료앱 'kalmeda', 우울증 치료앱 'Selfapy' 등이 임시 수가를 부여 받음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근거기반 디지털헬스 앱에 대한 의료 수가 체제를 구축하려는 선도적 시도로, 향후 독일이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현대화하고 치료 및 간호 품질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¹²⁾

12) Sara Gerke, Ariel D. Stern & Timo Minssen, Germany's digital health reforms in the COVID-19 era: lessons and opportunities for other countries, npj Digital Medicine volume 3, Article number: 94 (2020)

Ⅲ 디지털 헬스케어의 비즈니스 모델 및 국내 동향

1. 비즈니스 모델

- 위와 같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보험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충분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
 - 자금 확보를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은 제약·의료기기 기업, 병원 등 전후방 산업들과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과 현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모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¹³⁾

1)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동향

- 인공지능 병리·영상진단기기 개발 기업들은 의료기기회사와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사업화 모색
 - 인공지능 영상분석 의료기기의 경우 X-ray, CT, MRI 등 영상촬영장비에 인공지능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를 내장해 판매하는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루닛(Lunit)은 GE헬스케어와 파트너십을 체결, 루닛의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 분석 솔루션이 GE헬스케어의 엑스레이 장비 및 PACS에 설치되어 제공
- 의료기기회사나 제약회사와의 협력 외에 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존재
 - 미국의 병리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페이지(Paige)는 병원과 임상실험실에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제약회사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디지털헬스 앱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제약회사, IT 회사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음
 - 피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는 글로벌 제약기업 노바티스(Novartis)와 조현병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 클릭 테라퓨틱스(Click Therapeutics)는 오츠카(Otsuka)와 파트너십을 맺고 우울 장애를 치료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Boehringer Ingelheim)과 조현병 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상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체결

13) PMLiVE, 위의 기사.

- 해피뉴론(HAPPYneuron), 포짓 사이언스(Posit Science) 등 일부 회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¹⁴⁾

* 해피뉴론은 인지기능 자극을 통한 두뇌 훈련 프로그램 개발, 포짓 사이언스는 온라인 두뇌 훈련 프로그램인 'brainHQ' 개발

2) 비용 부과 방식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 의료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비용 부과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 개발업체들은 수요자(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예측가능성, 사용량, 현금흐름 등을 고려한 니즈에 맞추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
- 현재 주로 논의되는 비용 부과방식은 크게 영구 라이선스 판매 방식, 구독료 부과 방식, 이용 건당 비용 부과 방식 등이 있음

〈비용 부과방식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	장점	단점
영구 라이선스 판매 (+연간 유지보수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금 지급에 따른 원활한 현금흐름 •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와 유지보수 계약 기회 • 고객 록인(Lock-in)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간의 판매 사이클 • 자본이 적은 고객에 부적합
구독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창출 • 영구 라이선스 구매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되는 고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난이도의 맞춤화와 통합을 필요로 하는 솔루션에 부적합
이용 건당 비용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속한 고객층 확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사용량에 따른 낮은 수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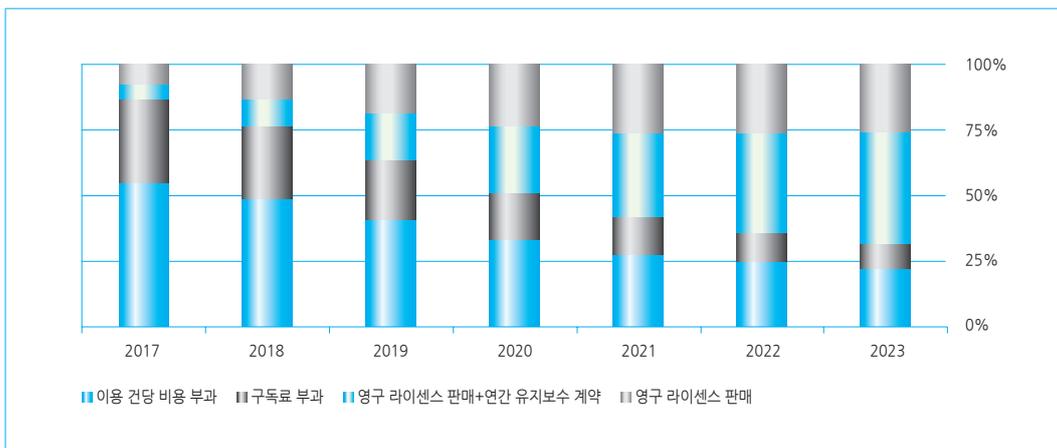
자료 : Signify research(2018) 재구성

- 영구 라이선스 판매는 고객 록인(Lock-in)* 효과가 있으며,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와 유지보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주로 자본이 충분한 고객에게 적합한 방식

* 기존 시스템 대체비용으로 인해 기술 전환을 하지 못하는 상태

14) 김치원, 디지털 헬스케어는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2020.4.

- 구독료 부과 방식은 일시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영구 라이선스 구매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안 되는 고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
- 이용 건당 비용 부과 방식은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층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는 방식이며, 수요자(의료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진입 비용이 적은 방식
 - 그러나 의료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사용량이 많을 경우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며,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입장에서는 고객의 사용량이 적을 경우 수익이 적어질 위험이 있음
- 의료 소프트웨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영구 라이선스 판매 방식이었으나, 클라우드 기반의 AI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구독료와 이용 건당 비용 부과 모델이 우세해질 것으로 예상됨¹⁵⁾



자료 : Signify Research

글로벌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 비즈니스모델 전망

- AI 영상진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은 보통 이용 건당 비용 부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현재 뷰노의 수익 모델은 영상 분석 10건·100건을 진행할 수 있는 상품권을 각 병원에 판매하는 방식이며, 장기적으로는 월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¹⁶⁾
- 미국의 IDx는 당뇨병 망막병증 환자 스크리닝을 위한 AI 소프트웨어 IDx-DR에 대해 검사 건당 비용 부과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 스페인의 QUIBIM은 전립선, 유방 등에서 병변을 찾아내는 영상진단 플랫폼에 대해 라이선스 판매 방식과 이용 건당 비용 부과 방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음

15) Signify research, Business Models for AI in Medical Imaging, 2018.9.6.

16) 서울경제, 뷰노, AI로 의료영상 분석...코로나까지 확대, 2020.7.27.

2. 국내 동향

- ◎ 인공지능 의료기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존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건강보험 수가 판단 기준 등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 중

 - 2019년 12월,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분야)과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분야에 적용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2020년 12월, 병리학분야 시기반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추가 발표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에 제공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존 의료행위 대비 진단 능력이 향상되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추가적인 가치를 인정
- ◎ 2018년 5월 뷰노의 골연령 분석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 의료기기로 첫 허가를 받은 이후, 2020년 9월 기준 총 53개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허가를 받음

 -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된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없으며, 주로 의료기기 기업과의 B2B 형태로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에 직접 판매하기도 함
- ◎ 디지털헬스 앱에 대해 국내에서는 수가관련 제도는 확립된 것이 없으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관련 제도 마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2020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치료기기 제품의 범위와 판단기준, 허가·심사 방안 등을 담은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
 - 소프트웨어의료기기(SaMD)에 해당하며, 질병을 예방·관리 또는 치료하게 위한 목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고, 치료 작용기전의 과학적(임상적) 근거가 있는 경우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
 - 환자에게 과학적(임상적) 근거가 적용·구현되는 작용원리에 관한 자료, 성능에 관한 자료,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을 검토해 디지털치료기기로 허가
- ◎ 국내에서도 여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디지털헬스 앱 등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임상단계에 있으며, 디지털치료기기의 보험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

 - 라이프시맨틱스는 암 환자 예후 관리 프로그램인 ‘에필케어M’, 호흡재활 서비스인 ‘에필 브레스’ 개발 및 임상시험 완료
 - 뉴냅스는 VR 기반 뇌손상 시야장애 치료제 ‘뉴냅 비전’을 개발하였으며, 2019년 7월 식약처의 임상허가를 받아 임상시험을 진행 중
 - 웰트는 노인성질화인 근감소증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에임메드는 불면증 및 ADHD 치료제 개발 중

IV 결론 및 시사점

- ◎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케어는 보건의료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나 비용부담 문제의 해결이 필요

 - EMR, PACS 등 인프라 성격의 제품은 수요처인 병원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나 개별 환자에게 적용되는 제품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함
- ◎ 하지만 기존 건강보험 수가 체계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섭하는데 한계
- ◎ 기존 체계 하에서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받은 미국과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법제를 구축한 독일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미국 HeartFlow는 자사의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이 별도 수가를 책정 받을 수 있는 독립된 서비스임을 다방면에 걸친 노력 끝에 정부 당국에 입증
 - 미국 Viz.AI는 신기술 추가 지불보상을 통해 뇌졸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병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였는데, 이는 건강보험 수가의 산업적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 독일의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디지털 헬스케어 앱을 법정 건강보험의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잠정 등재 신청도 가능하게 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수가 체계의 한계도 극복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미국과 독일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개발과 건강보험 수가 책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외의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업체들은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 병원 및 소비자에 직접 판매 등 다각도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서고 있음

 - 비용 부과 방식으로는 영구 라이선스 판매 방식, 구독료 부과 방식, 이용 건당 비용 부과 방식 등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모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 ◎ 우리나라에서도 규제 및 수가 체계 확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당장의 건강보험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은 임상적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하는 상황
-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상황에서 수익모델 창출이 산업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

 - 산업계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나서고, 정부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및 수가 시스템을 정립해나갈 필요가 있음

